

<2020년 1월 1일 수요일 말씀> 신년 예배 - 요약

☞ 교단의 공식 말씀 문서 아님니다, 참고 바랍니다.

나와 같이 하자.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.

본문: 요한복음 10장 34~35절

<전초: 정조은 목사님>

◆ 똑같은 나무라도 방향을 잘못 잡아 심으면 불 때마다 안타깝고, 멋없어요. 방향을 잘 맞춰 심어야 가장 멋있고 아름답습니다. 신앙도 가장 정확한 방향은 주를 쳐다보는 방향입니다. 주의 정신, 사고와 접목하지 않으면 신앙 할 때마다 보기 안 좋습니다. 신앙의 방향을 정확히 하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 주의 교육, 주의 말씀을 꾸준히 받아야 신이 되어 날 수 있습니다.

<선생님 말씀>

◆ 2020년 새해를 맞았어요. 새해, 새로운 역사에 일할 것이 있으니, 일어나자, 더 새롭게 하자.

더 새롭게 하려면 더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해요.

하나님께서 “네 때가 또 왔다. 일어나 빛을 받자.”

2020년 새로운 해이니,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.

작년에는 안 됐지만, 올해는 되고,

작년에는 작게 했지만, 올해는 더 크게 하고.

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니,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받자.

◆ 이 해의 방향, 말씀 받으면 신이 되니, 말씀을 받아야 한다.

우리는 이미 새로운 이 시대의 말씀을 받고, 새로운 시대에 살아왔어요. 말씀을 받았으니 방향을 잡았어요.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못 잡습니다. 새로운 말씀 듣고 행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. 이미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고 41년 동안 역사를 펴왔어요. 그 결론으로 우리는 세계 60개국까지 복음을 전했어요.

◆ 기독교에서 “주가 와서 역사를 펴신다, 기다리는 메시아가 온다, 휴거 역사 일어난다.” 불 심판, 말세 등 많은 것을 기다렸어요.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믿던 대로 제대로 된 것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. 말세 때 휴거가 된다고 하는데, 휴거도 아직 안 됐다고 하고, 메시아도 아직 안 왔다고 해요. 그러니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. “주님 오면 부활 역사를 한다, 죽은 자가 살아나고 공중으로 간다.” 했는데, 그것도 안 이뤄졌어요.

아무것도 이뤄진 것 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요.

◆ 역사는 아는 사람만 갑니다.

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감행하세요.

말세 때 지진, 환난, 1999~2000년에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.

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, 유대인들이 안 믿었죠. 하나님은 때가 되면 행하세요.

휴거 역사도 지나갔고, 재림 역사도 지나갔어요.

◆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성경 배울 때 항상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. 메시아가 나를 가르쳐서 정확해요.

정확하니 41년 동안 교회 수백 개를 세우고,

하나님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냈잖아요.

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만든 거예요.

◆ 예수님이 나에게 꼭 전해주라고 했어요.

예수님의 육신이 죽었는데, 기독교인들이 안 죽었다고 하니,

“내가 살아났다고 믿고 신앙하면 착오가 생긴다.”

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행하죠.

◆ 기독교도, 정치, 과학, 의학도 모르면 사람을 죽게 해요.

턱을 넣으면 되는데, 턱이 빠졌다고 병원에서 의사가 턱을 잘랐어요. 나는 41년 동안 교인들 수만 명의 병을 손대 고쳐줬어요.

어떤 사람은 수술하는데 4000만 원 든다는 것을 3분 안에 고쳐줬어요. 그러나 병 고쳐주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.

그것을 주로 하지 않고, 구원을 시켜줘야죠.

◆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뜻이라고 알았을 때는 눈물이 안 나왔어요. 뜻이 아닌 것을 70일 기도할 때 깨닫고, 내가 21일 동안 울었어요. 너무 억울하다고, 예수님을 안 죽였으면 세상을 쓸어놓고 가셨을 텐데. 유대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기다린 메시아인데. 하나님은 “사랑하는 처녀들아, 내가 간다.” 이스라엘을 여자, 처녀로 비유했어요.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오셨어요.

◆ “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.” 이런 말씀 제대로 받으면 신이 됩니다.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뛰고 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임해서,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된 거예요. 신의 특성은 ‘안다.’ 신은 안다. 여러분이 신이 되면 어마어마해요. 잡신도 아니고,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.

◆ 무슨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냐? 이 시대 말씀을 받으면 신이 돼요. 이 시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펴고 있잖아요.

종교에서는 가장 큰 것이 말씀이에요.

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.

“해가 있으라, 빛이 있으라.” 그것이 실제로 이뤄지게 선포하셨어요. 내가 “나아라.” 하면 병이 순간에 나았지요.

말을 못 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, 머리 마비된 것이 나왔죠.

하나님이 그와 같이 전지전능하셔서, “산이 생겨라.” 하면 산이 생기고, 화산 폭발하고 작용이 일어났어요.

◆ 그 전에 내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는

내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.

나무 보고 “죽으라.” 하니, 바로 바짝 말라 죽었어요.

그래서 나보고 말을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

시대 말씀을 받아서 신이 되었어요.

◆ 시대 말씀을 받아야 최고의 구원을 받아요.

최고의 역사를 맨 마지막에 펴요. 그것을 받으면 영원히 누립니다. 지구상의 부귀영화 해봤자, 40년, 70년, 80년 누리는 사람 없어요. 영원한 세계를 차지하는데,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보

다 훨씬 높은 곳에 가요. 예수님 믿고 산 사람들은 형제로 대해요. 형제 갖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?

하나님이 애인으로 보고 섬기라고 허락한 것이니 어마어마하죠.

◆ 구약 4000년은 종으로 허락하셨고, 신약에서는 아들이 되게 했죠. 다른 종교는 절대적인 것을 몰라요. 종인지, 아들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요. 기독교 교리가 확실하지 못해요.

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셨어요. “속 시원히 말 좀 해 다오.”

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안 배워서 속 시원히 말을 못 한다고.

나는 제대로 배웠어요. 성경을 확실히 배웠어요.

◆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신이 귀신이 돼요.

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.

내 말 듣고 하나님을 믿어라. 그래야 네 영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. 70억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도 육신은 한 명도 못 가요.

지금 하나님이 외쳐주시고, 주님이 외쳐주시고, 예수님이 나를 통해 외치시는 거예요. 답답하다고.

◆ 예수님도 그 주관권에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입니다.

항상 이상의 세계로 역사는 가는 것입니다. 끝까지 가야 형성이 됩니다. 여러분은 정말 엄청나게 본 거예요. 계시자들 통해 보여줬잖아요.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계시를 읽어봐요.

잘 하고 기본이 되면, 전학 정도는 합니다.

◆ 하늘나라를 확실히 정확하게 봐야 해요.

나는 봤어요. 성령도 보고, 하나님도 보고 다 봤어요.

하나님 눈 두 개, 코 하나, 근엄하시고, 얼굴 젊으시고.

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니에요. 아주 젊으신데, 최고의 어른같이 계시요. 나 보라고. 젊는데 나이로는 할아버지잖아요. 젊는데 어른이잖아요. 성령님은 여자, 얼굴은 가름하죠. 각이 전혀 없어요. 눈이 축 들어가지 않았어요. 영계 다녀온 사람, 성령 본 사람들 있어요. 꿈에서도 봐요.

◆ 예수님은 육신도 눈이 들어가 있고, 영도 눈이 깊어요.

영체는 기본형은 갖고 있어요. 예수님의 육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. 육계보다 더 완벽하게 영이 존재해요.

육은 가다 없어지니 믿고 따를 것이 못 됩니다.

영은 천국을 가든, 지옥을 가든 영원히 존재합니다.

◆ 나는 영계를 어떻게 가냐, 말씀 받으면 신이니, 그대로 중계해요. **하나님이 내 육신을 쓰고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.** 올해 기본 방향, “그날그날 필요한 것을 내가 말해주니, **그날그날 신부들이 행해야지.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자.**”

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갈 길을 잃고 방탕하게 된다고 했어요.

모르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만 실천하게 됩니다.

◆ 오늘 아침에 해 뜨는 것 보러 가자고 해서 전망대에 갔어요. 구름이 두툼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. 그동안 말씀을 전했어요. 하나님 성전과 산, 여섯 날개를 확실히 보여주고 전해줬어요.

지금 뭐가 뜬 줄 아느냐? 나에게 음성이 들리길,

말씀이 났다. 말씀이 뜬 것은 하나님이 뜬 것입니다.

말씀 전할 때 정말 흥분되고, 좋았죠. 해를 본 것보다 수십 배 나 **은 말씀을 받아서, 아는 신들이 되었어요.**

◆ 그리고 말씀 들었으니, 하나님의 성전 의자를 한 바퀴 돌자.

호랑이 능선, 별봉정, 가는골 타는 데 2시간 걸렸어요.

가다가 나무 손댈 것을 손대고.

올해도 이와 같이 유유히 이끌어 가야겠구나.

내가 안 왔으면 이들이 여기에 왔을까?

역시 머리 통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.

머리가 뛰어야 지체들이 움직인다고 하셨어요.

◆ 그리고 밴드 악단들과 성령 폭포에서 지휘하고 멋있게 영광 돌렸어요. 밴드 악단 나팔 큰 것에 공을 던져 넣는데, 공을 놓쳐요. 공을 받을 때 낮춰라, 가르쳐주니 금방 받아요.

올해는 이들을 코치 많이 해 줘야겠구나.

◆ 신의 코치는 간단해요.

축구에도 써먹고, 야구에도 써먹고, 탁구, 테니스에도 써먹어요.

공이 오면 안으로 스펀지 역할을 하면서 받아서 쳐야 해요.

사람들 전도할 때도 스펀지 역할을 포근하게 해줘야 한다.

안 그러면 뿔겨 나간다. 기술이 있어야 한다.

하나님이 많이 연결해 주셔도, 기술 있어야 안 놓친다.

◆ 운동하는데, 현재 뛰는 프로 축구 선수들이 왔어요.

축구 선수 있으면 게임이 안 돼요.

정초부터 지면 안 되는데. 지면 통답 내기다.

그랬더니 엄청 열심히 해요. 뭘 주면 저렇게 강하게 뛰겠구나.

올해도 뭔가 대책을 내놔야겠다고 했어요.

결국은 선생님이 뛰어서 밀어붙여서 이겼어요.

지면 내 기록이 깨뜨려 지니까.

◆ 그렇게 수백 번 축구를 했는데, 진 적이 없어요.

그렇게 다 이기기가 힘들어요. 겨주기도 힘들어요.

누가 쳐다보면 민망하니까. 겨주기도 힘들고, 이기기도 힘들어요.

예술단이 8:2로 지고 있어요. 계속 저서 코치를 했어요.

죽자 살자 밀어붙여서 뛰자고 해서 결국은 이겼어요.

애들이 못해도 혼내지 말고,

내가 뛰어들어가서 같이 해야겠구나, 깨달았어요.

◆ 깨닫는 것이 신이 되는 방법 중 하나예요.

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하셨어요.

지도자들은 같이 가서 해 보고 말해야지,

못했다고 책망만 하지 말고 같이 뛰여주기 바랍니다. 말씀 갖고

코치를 많이 해 주고, 많이 이끌어줘야겠다고 깨달았어요.

◆ 올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야 해요.

올해는 일반에 우리 말씀을 서서히 내놓고 확실히 주장할 거예요.

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내놓아야 안다고 해요.

숨기면 알 수가 없고, 말 안 하면 모른다.

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일반에 그대로 공개할 거예요.

그러면 다른 종교들이 게임이 안 되지요.

다른 종교에서 말씀을 갖고 가도 그들은 구원이 안 돼요.

구원은 구원주가 있어야 구원이 됩니다.

내가 4000자루를 쓴 글쟁이이니, 그런 내용을 쓸 거예요.

◆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20분 한다고 했는데,

하나님께서 “그것은 네 생각이지, 말씀은 줄 때 줘야 한다.” 고 하셔서, 말씀을 준 것입니다. 신앙생활을 개인들이 잘하면 아주 잘 됩니다. 우리 자체에서 싸우지 말고, **신앙 철학이 확실해야 하고, 어려움 전디고, 부지런하고, 열심을 품어야 하고, 가르쳤으니 열심히 해야 합니다.** 너무 지치게 되면 쉬어야겠지만, 계속 쉬면 곤여지니, 해야 합니다.

◆ 올해는 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할 거예요.

나이 든 사람들 치매도 많이 걸리니,

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줄 거예요.

◆ 사회생활도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해야 해요.

사회가 굉장히 발달 됐지만, 돈 벌기도 어렵고, 잘 안 됩니다.

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 주시니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.

모두 힘내서 해요. 나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뛰었어요.

지금은 기름진 곳에서 하잖아. 앞으로 잘 되니.

◆ 하나님도 순서를 거치면서 주셨어요.

나도 40대, 50대, 60대에도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,

70이 넘어가면서 주시기 시작하셨어요. 그래도 커요.

그때그때 받고, 있는 것 잘 써먹고 가고.

“안 된다, 안 된다.” 하면 큰일 나요. 골치 아프게 돼요. 때가 되면 다 해 주시니, 우리가 할 것만 제대로 하고 가면 됩니다.

◆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. 예수님도 말씀 받고 신이 되었고, 모세도 말씀 받고 신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냈어요.

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끌어 오는 것도 힘든데,

민족을 종살이에서 끄집어냈어요. 그러니 신이 되어서 한 것이죠.

예수님도 그 시대 말씀 받고 신이 되어서 하셨듯이,

나는 이 시대 말씀 받고 이 시대 신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.

말씀 들었으니 기도해서 꼭 저장해야죠.

<기도>

사랑하시는 하나님, 말씀이 저장되어 확신 서서 살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, 말씀 받으면 신이 된다고 했으니 이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, 주일, 수요일, 새벽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. 신이 되어야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.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같이 삽니다. 이들이 신이 되어 행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, 성부, 성자, 성신이 이들과 함께하시고 영원할지어다. 아멘.

◆ 내가 중국 옥에서 창밖만 쳐다보니까, 말씀하시길,

“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고, 하늘 운명으로 가는 것이니,

창밖만 보고 시간만 보내지 말고, 노래를 하자.” 고 하셔서,

극적인 환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“천지 창조” 곡을 받았어요.

여러분도 극적인 환경에서 큰 것을 받을 수 있어요.

무서워 말고 하면 됩니다.

천지 창조 곡은 하나님께서 최고 위대하게 주신 곡입니다.

웅장하고 엄청납니다.

이 곡은 지휘하면 불이 붙어나갑니다.

◆ 하늘 운 타고, 자기 노력 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. 하늘의 보낸 자의 운을 꼭 타야 해요.

과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꼭 그를 통해 축복하시고 하시더라고.

때가 되면 높이고, 때가 되면 더 큰 것을 주시고,

트실 때는 트는 대로 가야 나중에 큰 것을 얻어요.

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.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고 하시겠나.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걱정 말라.

말씀 읽음							
-------	--	--	--	--	--	--	--